광주·전남 불교대학 '붐'…지역 포교 활기

백양사, 3월 5일 불교대학 개교식
32명 입학해…장성 지역포교 나서
증심사,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개강
미륵사도 아카데미 설립, 교육 시작
'빛고을불교대학' 3기 입학식 열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가 장성 상무대 명상원에 '백양사불교대학'을 개원했다. 개원식 참석대중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불교계가 불교 교육 열기로 뜨겁다. 백양사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교해 장성지역 포교에 나섰고, 사찰음식으로 잘 알려진 광주 미륵사도 첫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교육포교에 뛰어들었다. 광주 증심사와 화엄사 빛고을포교원도 교육을 통한 불교 홍포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3월 5일 장성 상무대 명상원에 '백양사불교대학'을 개원하고 활발한 지역포교 활동을 다짐했다.

개원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 교무국장 정궁 스님, 재무국장 선묵 스님 등 백양사 소임자스님을 비롯해 김광태 신도회장, 이원혁 대령(장성 무각사 금강회장),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재민 대령(상무대근무지원단장) 등 신입생이 참여해 개원과 입학을 축하했다.

무공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과 백양사 불교대학과의 인연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인연이다. 이 귀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이원혁 대령을 포함한 신입생 32명에게 입학증서와 선물이 전달됐다. 입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교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보리도를 이루며,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서원한다"고 다짐했다.

백양사불교대학은 1년 교과과정이다. 부처님 생애, 불교개설, 명상실습, 천수경 강의, 반야심경, 교양 부분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7시에 2시간씩, 총 32주간 강의가 진행된다.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특강, 봉사활동 등 불교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3월 5일 자비신행회에서 '2024빛고을불교아카데미' 상반기 강좌를 시작했다.

총 15회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일반시민과 초심 불자를 위한 불교학개론 프로그램으로 부처님 일생, 불교문화, 불교철학과 사상, 불교역사, 불교와 윤리, 불교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진행한다.

주지 중현 스님은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는 교육강좌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에서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 강좌를 통해 누구나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 스님)는 '수자타불교아카데미' 개원하고 본격적인 불교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3월 5일 수자타 문화센터교육관에서 열린 개원식과 함께 혜법 스님을 비롯한 강사진과 50명의 제1기 신입생이 참여해 첫 강의를 진행했다.

주지 혜법 스님은 "많은 인연 공덕으로 무등산 자락에 미륵사와 수자타라는 쉼과 힐링의 공간을 이루고,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이루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광주 광산지역 불교대학인 '빛고을불교대학'도 제3기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이 운영하는 빛고을불교대학은 3월 5일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3기 35명, 경전반 30명과 이사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학장 연성 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열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전법 합시다'라는 법문을 통해 "불교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씨앗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빛고을불교대학은 2022년 개교 이래 매년 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울주 보덕사 삼층 금강탑 점안법회 봉행

부처님 치아사리 등 사리 5과 봉안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물품 전달도


삼층 금강탑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울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는 3월 1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석조 삼층 금강탑 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시작된 점안법회는 울산불교방송 김영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삼층 금강탑 제막식, 육법공양, 진도북춤,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 소개 및 신도회 소개, 백미 및 기금전달식, 주지스님 인사, 봉행사, 축사, 축시 낭독, 축가, 법어, 공지사항 안내,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덕사 주지 효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끌고자 원을 세우고 삼층 금강탑을 조성하게 됐다"며 "보덕사를 지역 대표 사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효암 스님은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울주군 상북면 청년회에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상북면사무소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포도 후원했다.

김남규 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보덕사 불자 여러분들의 지극한 정성과 불심 덕분에 탑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었다"며 "동참하신 모든 분에게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금강탑 조성 불사의 공덕은 무엇보다 수승하다. 오늘은 그 공덕을 회향하는 자리"라며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이 행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보덕사 삼층 금강탑은 익산 황등석으로 조성됐다, 탑신 1층 사방불은 동쪽 약사여래불, 남쪽 석가모니불, 서쪽 아미타불, 북쪽 비로자나불이 새겨졌다. 탑신부 2층의 둥근 홈에는 부처님 혈사리 1과, 흑사리 2과, 치아사리 1과, 태고종 13세 종정을 지낸 덕암 스님의 진신사리 1과를 봉안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신임단장 취임

"화합 · 정진으로 나아갈 것"
부단장 등 임원진에 임명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제12대 김용수 단장과 신임 13대 안수빈 단장의 이취임식이 3월 3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봉행됐다.

강일수 수석부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는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응묵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제환 스님,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남궁선 전 금산사 신도회장, 이정희 금산사 신도회 부회장, 하유호 108산사 순례단장 등 신행단체장들과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김용수 12대 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지역스님들과 포교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전북지역단 포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삼보를 수호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수빈 신임단장은 "전북지역단 포교사들과 함께 화합과 정진, 봉사와 전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탓하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포교와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신념으로 전법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수빈 신임단장은 13대 강일수 수석부단장과 5개 총괄팀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이임하는 김용수 단장에게는 공로패와 기념 포교사 뱃지를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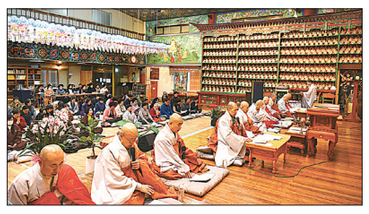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승가의 가장 큰 덕목은 화합이다. 구성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소하고 이해하면서 화합하는 단체가 될 때,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사 포교국장 응묵 스님은 축사에서 "전북지역 최초의 여성단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포교사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불교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 지역불교 활성화 나섰다

3월 4일 후원물품 전달식
6일 금강경 독송 기도 입재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 관음사 주지)는 3월 4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2024 돌봄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서는 관음사 신도들이 마련한 백미 2000kg와 법륜사가 후원한 100만원이 전달됐다. 후원물품은 서구청을 통해 돌봄 이웃과 저소득층 세대에 전해질 예정이다.

3월 6일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광주불교 화합과 중흥을 위한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 입재식과 광주경찰청 경승 위촉식도 이어졌다.

금강경 독송 기도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금강경 원문을 3독한다. 기도는 2025년 2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현재 1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월 1만원(1년 10만원)인 동참금은 전액 광주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된다.

소운 스님은 "광주지역의 불교 중흥과 화합을 위해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기도를 통해 화합과 광주불교회관 건립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승 위촉식에서는 경승실장에 소운 스님이 경승에 도제 스님이 신규로 위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림사 동진보살·신중탱화 점안법회

3월 3일 경내 명부전서



진해 송림사(주지 지암 스님·진해사암연합회장)는 3월 3일 경내 명부전에서 동진보살, 신중탱화 39위, 사천왕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지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이 동참해서 지금의 송림사 도량이 사격을 갖췄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벽에 틈이 생기면 비나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군이 들어오거나 몸이 병들게 된다"며 "뛰어난 신심과 원력으로 업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증명법사를 맡은 불곡사 도홍 스님은 법어에서 "송림사 불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스님의 위신력과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이룰 수 있었다"며 "'시종일여'의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가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혼무 공연과 정토회의 합동천도재가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갑진년 신년하례 법회

3월 5일 밀양 삼봉사서



사)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녹원 스님)이 3월 5일 밀양 삼봉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총무원장 녹원 스님을 비롯해 덕송 스님, 성광 스님, 무안 스님, 상운 스님, 무봉 스님, 승진 스님, 정음 스님, 정오 스님, 운봉 스님, 혜명 스님 등 종단 소임자 스님들과 윤기순 법인대표, 이재연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녹원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불교조계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도들이 힘을 합쳐 중지를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윤기순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하여 무량 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올해로 창종 3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조계종은 수행 가풍과 승풍진작, 지역별 교구 중심제 강화,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쇄신, 종무행정시스템 개선 및 협회 재정 안정화, 승려복지 시스템 확대 및 내실화, 포교정책의 다각화, 종단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능인종 시무식·영남범음범패보존회 개강

6개월 과정…초급 · 중급 · 상급반



대한불교능인종(총무원장 수암 스님)이 2월 28일 김해 화장사 진영포교당에서 갑진년 시무식 및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15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총무원장 수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범음범패는 불교문화의 꽃이자 불교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며 "단기간 교육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불교 전통문화인 범음범패를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강한 영남범음범패 15기는 6개월 과정이다. 초급반은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예경의식을, 중급반은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 의식, 시식, 사물 다루는 법을 공부하게 된다. 또 상급반은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복청게, 오공양 소리를 전문강사스님들의 지도로 수련하게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